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
2019년 10월 11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0. 10.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10. 10.(목)	담당부서	투자유치과
담당과장	김재준 과장(044-203-4080)	담 당 자	위성원 사무관(044-203-4086)

2019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

- ‘19. 10. 10.(목) 배포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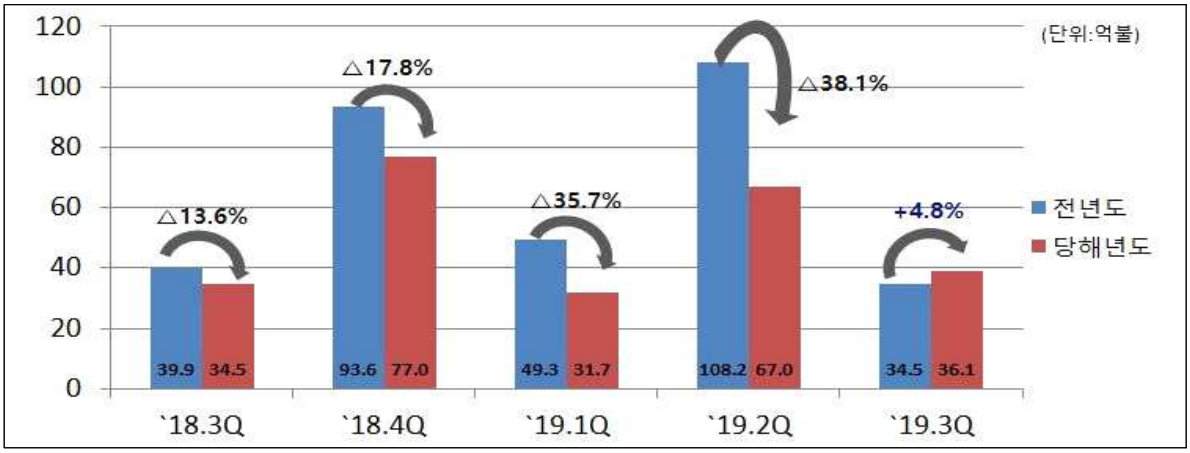
○ 본 동향 자료는 산업부의 외국인직접투자통계(INSC)와 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, 코트라(KOTRA)의 자료를 바탕으로 **2019년 3분기** (7.1 ~ 9.30) 외국인직접투자를 분석한 자료임

○ 신고금액 및 도착금액은 **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잠정실적을 기준**으로 작성하였으며, **일부 수치는 추후 변경이 가능**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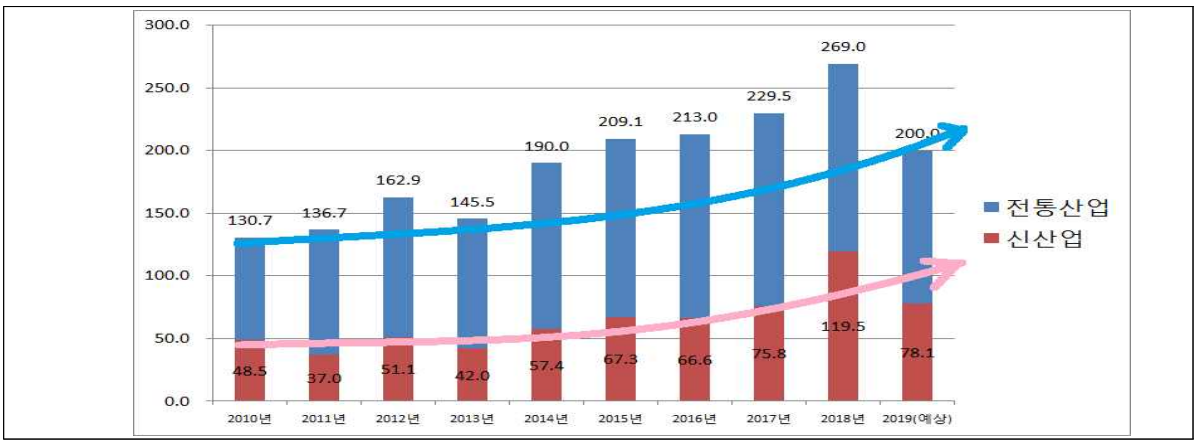
○ 산업부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은 **매분기 발표**되며, ‘19년 4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자료는 **‘20년 1월 중순경 발표예정**

2019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의 특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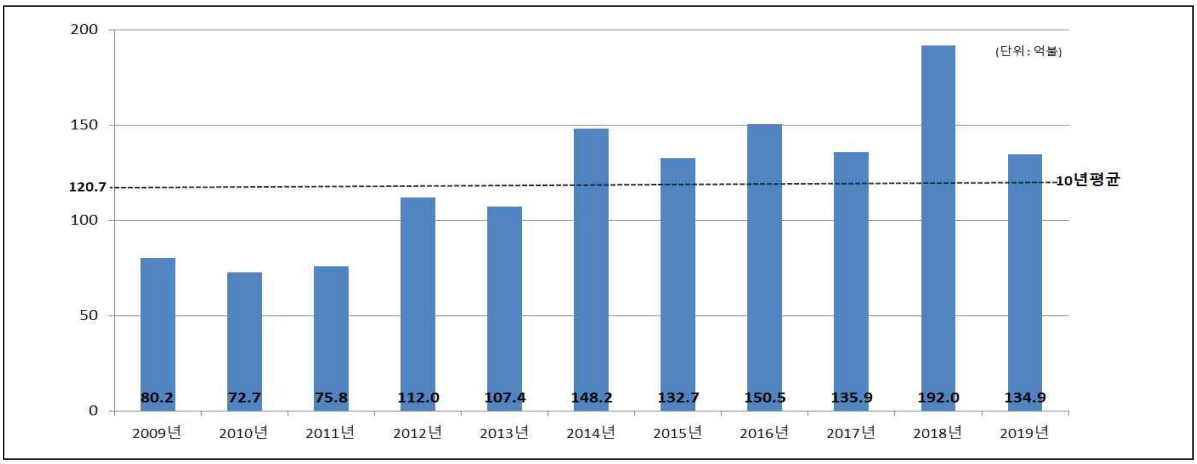
1 분기실적, 5분기만에 증가세(+)로 전환



2 신산업 분야 외국인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유입



3 금년 누적실적은 지난 10년 평균치를 상회, 장기적인 상승세 유지



2019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

분기실적 5분기만에 증가세(+4.8%)로 전환

- 첨단소재·부품 및 정보통신·바이오 등 신산업 투자 유입 활발 -

- 외국인투자, 「5년연속 200억불」 향해 순항 중 -

Ⅰ. 종합

□ '19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4.8% 증가한 36.1억불을 기록하여 4분기('18.3분기~'19.2분기) 연속 감소세에서 증가세(+)로 전환

【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증감추이 (단위 : 억불, 전년동기대비) **】**

구 분		'18.3분기	'18.4분기	'19.1분기	'19.2분기	'19.3분기
분기별실적	금액	34.5	77.0	31.7	67.0	36.1
	증감률	△13.6%	△17.8%	△35.7%	△38.1%	+4.8%

○ 이에 따라 올해 누적실적은 134.9억불을 기록하여 연말까지 "200억불 목표달성"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

<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평가 >

◈ '19년 3분기 신산업* 분야 외국인직접투자는 15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약 2배 증가**하는 등 외국인투자의 다변화·고도화도 차질없이 진행 중

* 신산업 업종: 첨단소재·부품, 인공지능, 핀테크 등 INSC 4단계 분류상 44개 업종

** 3분기 신산업 외국인직접투자 금액: ('18) 7.8 → ('19) 15.0억불 (+91.8%)

◈ 5분기만의 증가세 전환에 힘입어 "5년 연속 200억불" 목표달성 추진력 확보. 이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의 장기적 상승 추세 유지

Ⅱ. 투자사례로 본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주요 특징

1 첨단 소재·부품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속적 유입

○ 소재·부품 분야 글로벌 기업들의 대한(對韓)투자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어 외국인 직접투자 측면에서도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

○ 특히 첨단 석유화학과 반도체·디스플레이, 미래형자동차 분야에서 금속 등 기존의 주요 소재·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 및 부품 제조업체의 우수 프로젝트도 다수 유입

< 첨단 소재 · 부품 투자사례 >

- **(S사)** 타이어의 내마모성 증가를 위해 첨가하는 프리미엄 실리카 생산설비 증대를 위한 투자로 국내 수요업체의 원가절감 효과 (화학첨가제, 벨기에)
- **(G사)** 글로벌 반도체장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에 납품할 발광다이오드(LED) 제조를 위한 생산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 (반도체부품, 미국)
- **(O사)** 건설용 시멘트의 주원료이자 농업·의약 등 다방면에 이용되는 프리미엄 탄산칼슘 제조설비 증설을 위한 증액투자 (화학소재, 스위스)
- **(L사)** 비메모리 반도체(팹리스) 기업으로 전력반도체를 스마트폰이나 사물인터넷기기,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삽입할 수 있도록 초소형화하는 기술 상용화 (비메모리반도체, 미국)
- **(M사)** 철과 구리를 혼합한 금형소재 용도의 합금으로 특허청에서 '물질특허'를 취득하여 신소재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진행 (합금소재, 일본)

2 정보통신기술, 바이오 등 새로운 분야의 프로젝트 증가

○ 전자상거래, 공유경제 등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산업*을 중심으로 활발한 투자가 유입

*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가능케 하는 디지털 기반(인프라) 투자도 활발

○ 한국의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, 임상실험 기반(인프라)을 활용한 바이오· 의약분야에 외국 투자가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음

< 정보통신기술 · 바이오 관련 산업 투자사례 >

- **(T사)**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요식업 창업자에게 최적의 입지, 적정가격, 추천메뉴 등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국내 출시하기 위한 플랫폼 투자 (공유주방, 미국)
- **(W사)** 여행상품 판매를 위한 온라인-오프라인(O2O)플랫폼으로, 성장하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및 점유율 제고를 위한 투자 (모바일플랫폼, 몰타)
- **(T사)** 블록체인을 활용한 결제 시스템을 전자상거래(이커머스) 플랫폼에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투자 확대 (핀테크·블록체인, 싱가포르)
- **(H사)** 줄기세포를 활용한 항암제, 희귀질환 치료제 등 글로벌 제약사의 신약 출시를 위한 투자 (신약개발, 싱가포르)
- **(C사)** 약국용 의약품 조제 자동화 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의 재활용 로봇출시 등 사업 분야 확대를 위한 투자 (제약장비, 프랑스)

3 한류연계형 고급소비재·문화상품에 대한 투자관심 계속

○ 고급화되는 시장수요에 따라 화장품(K-뷰티), 콜드체인(K-푸드) 등 한국 시장의 비즈니스 기회를 보고 다양한 소비재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

○ 국내 소프트웨어·게임 콘텐츠 개발사와 협력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국내 유망한 문화상품 분야의 성잠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외국기업의 투자도 활발

< 고급소비재 · 문화상품 투자사례 >

- **(B사) 화장품(**K-뷰티) 관련 고성능 스킨케어・기능성 화장품을 제조해 온·오프라인으로 유통하는 미국기업의 아시아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투자 (화장품유통, 미국)
- **(K사)** 첨단 품질관리 시스템(콜드체인)과 선진물류 시스템을 활용하여 고급 식재료를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증액투자 (식음료 도·소매, 유럽연합)
- **(K사)** 유명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(MMORPG)을 출시한 국내게임 개발사와의 모바일 게임 공동출시, 해외시장 공략 등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투자 (소프트웨어 개발, 싱가포르)

Ⅲ. 전망과 향후계획

1. 전망

□ (**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**) '19.6월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는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'18년 대비 소폭의 회복세를 예측하였으나 다양한 불확실성 요인*이 상존하여 큰 상승세로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

* 미·중 무역 분쟁 등 보호주의 확대, 세계적인 경기하락 전망, 지정학적 위협(이란 등) 확대,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업구조 변화 등

□ (**우리 외국인직접투자**) 연말까지 유치 가능한 프로젝트의 규모와 상저하고(上底下高)의 흐름 감안시 "200억불 목표달성"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

2. 향후계획

◈ **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유치**

❶ **(성공사례 조기창출)** 투자의향이 확인되고 국민경제 효과가 큰 소재·부품·장비 투자 프로젝트에 맞춤형 투자지원으로 조기에 투자 가시화

❷ **(투자유치역량을 소재 · 부품 · 장비에 집중)** ①산업계 수요와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타깃품목을 선정, 투자유치 역량을 집중*하고, ②향후 투자유치활동을 소재·부품·장비에 특화하여 전개

* 유망입지,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, 신속 인허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투자유치제안서(request proposal for investment; RPI)를 타깃기업에 선제적으로 제시

** 4분기 투자유치활동 계획: (11월) 외국인투자주간(IKW), 미 실리콘밸리 투자유치활동, (12월) 동남권 외투카라반, 중(中) 상하이 투자유치활동 등

❸ **(국내 외투기업과의 소통강화)** 旣투자 외투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·해소하여 추가적인 증액투자 유도

* 현금지원 대상 확대와 사내유보금 재투자를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(현재 국회 계류 중)

Ⅳ. 세부동향(국가별 · 업종별 · 유형별)

1. 국가별 (신고기준, 전년동기대비)

1 미국 : 신고 8.4억불(△22.5%), 도착 2.0억불(△24.3%)

○ **(업종별)** 제조업 감소(0.1억불, △98.8%), 서비스업 증가(8.3억불, +164.5%)

○ **(유형별)** 인수 · 합병 감소(0.1억불, △98.5%), 그린필드 증가(8.3억불, +147.0%)

미국 발(發) 외국인직접투자 주요사례

▸ **(공유주방)** 빅데이터 기반의 요식업 경영컨설팅 서비스 출시를 위한 투자(T사)

▸ **(반도체부품)** 전력반도체 초소형화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(L사)

2 유럽연합(EU) : 신고 7.1억불(+25.2%), 도착 2.0억불(+22.1%)

○ **(업종별)** 제조업 증가(1.5억불, +213.5%), 서비스업 증가(5.5억불, +6.9%)

○ **(유형별)** 인수 · 합병 증가(2.4억불, +1,135.4%), 그린필드* 감소(4.7억불, △14.4%)

* 해외진출기업이 투자 대상국에 생산시설을 직접 설립하여 투자하는 방식

유럽연합 발(發) 외국인직접투자 주요사례

▸ **(화학첨가제)** 고품질 실리콘 생산기업의 설비 증대를 위한 투자(S사, 프랑스)

▸ **(의료용로봇)** 제약·자동화장비 개발업체의 재활로봇 등 사업분야 확장(K사, 프랑스)

3 일본 : 신고 5.9억불(+520.0%), 도착 5.1억불(+255.9%)

○ **(업종별)** 제조업 감소(0.3억불, △17.1%), 서비스업 증가(5.5억불, +829.2%)

○ **(유형별)** 인수 · 합병 증가(4.2억불, +1,528.7%), 그린필드 증가(1.7억불, +148.1%)

일본 발(發) 외국인직접투자 주요사례

▸ **(기술스타트업)** 인공지능 분야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재무적 투자(G사)

▸ **(첨단소재)** 열전도성이 높은 기능성 금형소재의 국내 양산을 위한 투자 (M사)

4 중국 : 신고 1.6억불(△16.5%), 도착 0.7억불(+138.7%)

○ **(업종별)** 제조업 감소(0.6억불, △62.1%), 서비스업 증가(1.0억불, +242.3%)

○ **(유형별)** 인수 · 합병 증가(0.6억불, +1,567.1%), 그린필드 감소(1.0억불, △47.2%)

중국 발(發) 외국인 직접투자 주요사례

▸ **(산업용레이저)** 국내 디스플레이 후공정용 레이저장비(발광다이오드(LED) 모듈 커팅장비, 필름 등) 업체와의 파트너십으로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사례(Y사)

2. 업종별 (신고기준, 전년동기대비)

1 제조업 (비중 : ('18) 34.0% → ('19) 10.3%)

◈ 신고기준은 전년 동기대비 **68.2% 감소한 3.7억불**을 기록 (비중 10.3%),
도착기준은 **16.9% 감소한 2.5억불**을 기록 (비중 18.2%)

('18) ①**화공**(8.5억불, +102.8%), ②**금속·금속가공제품**(1.4억불, △57.0%), ③**기계장비·의료정밀**(0.9억불, +246.1%)
('19) ①**화공**(1.5억불, △82.3%), ②**기계장비·의료정밀**(0.8억불, △12.7%), ③**식품**(0.6억불, +1,673.8%)

- ㅇ **(증가업종)** 식품(0.03→0.60억불), 섬유・직물・의류(0.01→0.06억불), 의약(0.07→0.12억불) 등에서 증가함

- ㅇ **(감소업종)** 화공(8.5→1.5억불), 금속・금속가공제품(1.4→0.2억불), 운송용기계(0.40→0.06억불)에서 감소

2 서비스업 (비중 : ('18) 65.9% → ('19) 86.4%)

◈ 신고기준은 전년 동기대비 **37.5% 증가한 31.2억불**을 기록 (비중 86.4%),
도착기준은 **35.8% 감소한 11.1억불**을 기록 (비중 80.9%)

('18) ①**금융·보험**(8.1억불, +246.1%) ②**정보통신**(6.4억불, +0.9%), ③**부동산**(5.0억불, △38.7%)
('19) ① **정보통신**(8.6억불, +35.1%), ②**금융·보험**(7.4억불, △8.7%), ③**부동산**(6.3억불, +26.0%)

- ㅇ **(증가업종)** 정보통신(6.4→8.6억불), 여가・스포츠・오락(0.02→2.0억불), 부동산(5.0→6.3억불)업종 위주로 증가

- ㅇ **(감소업종)** 금융・보험(8.1→7.4억불), 연구개발・전문・과학기술(0.5→0.3억불)에서 감소

3. 유형별 (신고기준, 전년동기대비)

1 그린필드형 (비중 : ('18) 59.3% → ('19) 74.0%)

◈ 신고기준은 전년 동기대비 **30.6% 증가한 26.7억불**을 기록 (비중 74.0%), 도착기준은 **43.5% 감소한 8.0억불**을 기록 (비중 58.5%)

○ (**업종별**) 제조업은 감소(4.1→2.6억불, △36.8%), 서비스업은 증가(16.3→23.0억불, +41.3%)

- (**증가업종**) 정보통신(1.8→5.7억불), 여가・스포츠・오락(0.02→2.0억불), 부동산(4.9→6.3억불) 부문에서 증가

- (**감소업종**) 금융・보험(7.0→3.0억불), 금속・금속가공제품(1.4→0.2억불) 부문에서 감소

2 인수・합병(M&A)형 (비중 : ('18) 40.7% → ('19) 26.0%)

◈ 신고기준은 전년 동기대비 **33.0% 감소한 9.4억불**을 기록 (비중 26.0%), 도착기준은 **6.9% 감소한 5.7억불**을 기록 (비중 41.5%)

○ (**업종별**) 제조업은 감소(7.6→1.2억불, △85.3%), 서비스업은 증가(6.4→8.2억불, +27.9%)

- (**증가업종**) 금융・보험(1.1→4.4억불), 기계장비・의료정밀(0.1→0.6억불), 도・소매(유통)(0.03→0.2억불)에서 증가

- (**감소업종**) 화공(7.2→0.4억불), 정보통신(4.6→2.9억불) 분야에서 감소. <끝>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위성원 사무관(☎ 044-203-408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